불상 저작권 소송…작품 or 예경 대상

4m 상당 대일여래상 10년째 오리무중
사찰 · 작가 간 의견대립 격화되면서
소유권 · 저작권 상반된 주장 몸살
공개 기다린 사부대중 우려 목소리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다카마츠(高松)시에 소재한 사누키 코쿠분지(讃岐国分寺)에서 조성하는 대일여래상을 둘러싸고 사찰 측과 조각가 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찰의 소유권과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면서 불상의 공개를 기다리는 사부대중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지난 5월 24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자세히 보도했다.

약 500여 년 전 코보대사가 구상해 조성한 대일여래상은 헤이안 시대에 교토의 토지(東寺)에 봉안돼 있었으나 15세기 말의 민란으로 인해 소실됐다. 이후 새롭게 조성됐으나 당초의 불상과는 일부 변형이 있는 것으로 전한다.

사누키 고쿠분지의 주지인 오츠카 슌지 스님은 지난 2012년, 개산 1200주년을 기념해 토지에 전해오는 역사서와 당시 불상의 모습을 전하는 사료들을 바탕으로 소실 전의 대일여래상을 재현할 것을 발의했다. 이에 13년에 도쿄의 조각가 오모리 아키오에게 조성을 의뢰했다.

코쿠분지 측은 "현존하는 사료들에 따르면 당시 코보대사가 조성한 대일여래상의 특징들



코쿠분지의 의뢰로 조성이 진행 중인 대일여래상.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이 적혀있다. 그러나 불명확한 점들도 있어 이 부분은 경전적 근거와 조각가와 협의를 통해 조성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자료조사와 협의를 통해 높이 약 4m의 불상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계획에서는 제작기간에 3년을 예정했으나, 세부적인 사항이 조율됨에 따라 제작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비용 역시 약 8100만엔(한화 약 7억원)이 소요, 코쿠분지 측이 전액을 지불했다.

사찰과 조각가 양측은 불상의 점안식과 대중공개를 위해 불상을 도쿄에서 사찰로 이운하는 일자를 지난해 8월로 설정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상의 공개 방법에서 의견이 나뉘면서 오모리 씨는 "불상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사찰 측은 불상의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도쿄 지법에 신청, 지법의 결정으로 지난해 11월에 조립 전의 불상이 절에 인도됐다. 그러나 오모리씨가 이와 동시에 작가의 승낙 없이 절이 불상을 조립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요구를 다카마츠 지재에 신청했다. 이에 동년 12월 지재는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해 사찰의 독단적인 불상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양측은 두 결정에 대해 서로 불복을 제기, 보전이의심이 도쿄, 다카마츠 각 지재에서 진행되고 있다.

코쿠분지 측은 "최초 예정공기였던 3년을 넘긴 상황에서 불상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더욱이 제작과정에서 사찰 측이 구체적인 지시와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불상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사찰에 있다. 당초 계획대로 완성된 불상을 대중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각가 측은 "이미 완성된 부분의 수정을 사찰 측으로부터 요구받는 등 원활한 제작의 방해를 받았다"며 완성이 늦어진 책임을 부정했다. 또한 "이 불상은 조각가의 사상이나 심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저작권이 인정된다. 작가의 동의 없이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길어지는 법정 공방에 대중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미술 작품에 앞서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사찰이 주문한 불상에 무리한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를 이루고 있다. 불상 조성에 기부했다는 한 남성은 "오랫동안 불상이 공개되지 않아 문제가 있을 것이란 생각은 했지만 이런 사정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달라이라마, 무릎 치료 위해 미국 방문

2017년 이후 7년 만의 방미
사무국, 쾌유 위해 기도 요청도



최근 다람살라에서 열린 법회를 주관한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무릎 치료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이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대중들에게 달라이라마의 건강과 쾌유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월 6일 '파율 닷컴' '더 티베트 넷' 등은 달라이라마의 일정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수년 전부터 무릎의 이상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치료가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지의 한 소식통은 "달라이라마의의 무릎 통증은 노령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일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장거리 이동 등이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달라이라마의 미국 방문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7년 만의 방문이다. 마지막 방문에서 달라이라마는 뉴욕에 위치한 메이요 클리닉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3일,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6월 20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중접견을 포함한 달라이라마의 공식 일정이 없음을 공지한다. 달라이라마는 무릎 치료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며, 치료 후 다람살라로 돌아와 예정된 일정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달라이라마의 건강과 빠른 쾌유를 위하여 달라이라마를 따르는 사부대중들에게 약사여래의 진언을 염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무국은 "약사여래는 불교에서 치유와 의학에 깊은 인연이 있는 본존"이라며 "약사여래의 진언인 '때야타 옴 베카제 베카제 마하 베카제 베카제 라자 사무가떼 쓰와하'는 몸과 마음에 치유를 가져오고 고통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6월 30일까지 이 진언들의 염송 횟수를 모아 달라이라마의 건강을 위해 회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현재 세계 각지의 티베트 난민 공동체에서는 달라이라마를 위한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스스로 110세 전후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나를 믿고 따라주는 많은이들을 위해 그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베트남 정부, SNS 인기 '순례자 스님' 구금 논란

소박 · 겸손 전법 모습 화제 일자
당국, '비공식 승려'라며 구금 추정

틱 민 튜(Thich Minh Tue) 스님으로 더 잘 알려진 베트남 남성 레 안 투(Le Anh Tu·43)를 베트남 당국이 구금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월 11일 라디오프리아시아(Radio Free Asia, RFA)는 "투가 구금됐다"며 "국제적으로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투는 삭발한 머리, 수선한 가사 3벌, 오래된 탁발 그릇을 들고 2017년부터 6년간 베트남 전역을 순례 중이다. 어떤 승단이나 사찰에도 속하지 않은 채 순례하며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한다.

최근 이 같은 그의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을



레 안 투의 순례 모습. 사진출처=RFA

담은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베트남 불자들과 누리꾼들의 큰 지지를 받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각종 부패로 얼룩진 베트남 고위 승려들과 비교하며 추종했다. 다만 그는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식 승려가 아닌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평범한 불자다.

당국은 이러한 이유로 지난 2일 새벽 그의 야영지를 급습해 투와 지지자들을 연행, 강제 구금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베트남 당국은 6월 8일 공영방송 VTV를 통해 최근 투의 근황을 공개하며 "투가 자발적으로 순례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트남 국민들은 여전히 투에 대한 당국의 억압을 의심하는 상황이다.

베트남의 한 사회 운동가는 "당국에 의해 공개된 투의 모습은 그가 큰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베트남 당국은 투가 정식 승단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일종의 반역으로 간주해 통제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4년 연례 보고서에서 베트남 정부에 대해 "모든 종교 활동을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신앙 공동체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종종 괴롭히거나 구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정현 기자

팝스타 카밀라 카베요 "불교에 빠졌어요"

팟캐스트 출연…불교 애정 드러내
"불자로서 전보다 현명해져" 소회



미국 팝가수 카밀라 카베요. 사진출처=야후뉴스

노래 '하바나' '세뇨리따'로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은 미국 팝가수 카밀라 카베요(Camila Cabello·26)가 "정말로 불교에 빠져 있다"며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5월 22일 뱅 쇼비즈(Bang Showbiz) 등 외신에 따르면 카밀라 카베요는 최근 'Armchair Expert' 팟캐스트에 출연해 "명성과 성공에 따른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불교의 철학적 사상을 포함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발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밀라는 "오늘날 내 성격의 많은 부분들은 도구와 기술, 그리고 내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개발해야 했던 메커니즘으로 형성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예를 들어 나는 과거에만 해도 내가 불교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며 "그런데 내 스스로 차분함과 인내심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필요에 의해 불교에 접근했다. 이후 불자로서의 나는 이전보다 더 현명해졌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카밀라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신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미국 걸그룹 '피프스 하모니(Fifth Harmony)' 멤버로서 10대 시절 큰 인기를 얻고 개인 활동을 시작한 후 '하바나'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생의 균형을 찾지 못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요리와 운전과 같은 평범한 것들을 익혔다. 가장 평범한 삶을 살면서 삶의 이상적인 균형을 찾았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